

목재이용법·국유림법 정비, 국산목재 활용기반 강화

‘목재이용법’·‘국유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법’의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인식 제고와 목재 산업·문화 진흥을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일인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지정하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기반 조성, 정책 협력 등을 위해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명칭을 변경해 목재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인 국산목재를 무상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산 목재 이용에 대한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목재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국산 목재 수요 창출 효과를 이끌어 탄소저장고를 확대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이

마중물이 되어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제도와 산업 기반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산림버섯 유래 에르고스테롤, 비만성 힘줄 손상 억제 효과 확인

국립산림과학원, 소포체 스트레스 억제와 근육·힘줄 신호 조절로 치료 가능성 제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산림버섯 유래 천연물인 에르고스테롤(ergosterol)이 비만 환경에서 발생하는 힘줄 손상(건병증)을 억제하는 작용 기전을 규명했다.

에르고스테롤은 힘줄 세포의 사멸과 기능 저하를 억제하고 소포체 스트레스와 근육·힘줄 간 신호 전달을 조절해 건병증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Mycobiology'에 게재됐다.

실험 결과, 에르고스테롤은 팔미테이트로 유도한 비만 유사 환경에서 힘줄 세포의 생존율을 높이고 세포사멸을 억제했으며, 손상된 세포 이동 능력을 회복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콜라겐 분해 효소를 억제하고, 힘줄 조직의 구조적 안정성에 필요한 콜라겐 수준을 정상화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이는 에르고스테롤이 단순한 염증 완화를 넘어 힘줄 조직의 기능 회복에도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건병증은 반복적인 물리적 자극뿐 아니라 비만 등 대사 이상에 의해서도 악화되는 만성 질환이다. 최근에는 지방산 축적에 따른 세포 내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포화지방산인 팔미테이트는 소포체 스트레스를 유발해 단백질 항상성을 무너뜨리고, 힘줄 세포의 사멸과 콜라겐 분해를 촉진해 조직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치료는 통증 완화와 물리적 재하에 집중돼 있어, 세포 수준의 병리 기전을 직접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에르고스테롤이 세포 내 스트레스 억제와 대사 조절, 조직 간 신호 전달을 아우르는 다중 기전을 통해 비만 관련 건병증을 완화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에르고스테롤은 버섯 유래 천연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 향후 동물실험과 임상연구를 거쳐 건병증 치료를 위한 실제 치료제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 이경태 박사는 “이번 연구는 비만과 연관된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전략을 세포·분자 수준으로 확장한 성과”라며, “향후 기능성 소재 개발과 신약 후보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보령시, '1160ha 조림·숲가꾸기 사업' 본격 추진

보령시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2026년 조림·숲가꾸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사업은 총 1,160ha 규모

이며, 36억 8,400만 원을 투입한다. 조림 사업 159ha에는 13억 640만 원, 숲가꾸기 사업 1,001ha에는 23억 7,760만 원을 각각 투입한다.

조림 사업은 편백나무와 낙엽

송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을 중심으로 경제림 조성, 크나무 조림, 지역특화 조림 등을 추진한다.

숲가꾸기 사업은 풀베기와 덩굴 제거, 어린나무 및 크나무 가

꾸기, 산불 예방 숲가꾸기 등을 통해 산림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보령시산림조합과 협력해 기상 여건과 민원 등을 고려하고 산주 동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K-동화정원! 이야기와 정원이 만나다

정원드림 프로젝트 25개소 조성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26년 정원드림 프로젝트'에 선정된 유휴부지 25개소가 정원작가를 꿈꾸는 청년들의 참여로 개성 있는 정원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정원드림 프로젝트’는 정원분야 취·창업을 준비하는 전공자로 구성된 팀(팀당 5명)이 정원작가의 멘토링을 받아 시·군·구내 유휴부지에 실습정원을 조성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젝트로, 2020년부터 매년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주관해



▲정원드림 프로젝트 수상작

오고 있다.

올해는 4월부터 6개월간 'K-동화정원'을 주제로 한국적 정서와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정원을 조성

하기 위해 세종, 청주, 당진, 거창, 제주, 양평, 울산지역 25개소에 125명 청년·대학생이 참여해 정원 디자인·조성·관리 활동을 하게 된다.

최현수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장은 “정원드림 프로젝트가 창의적인 정원 디자인을 발굴하는 동시에 미래 정원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유휴부지에 생명을 불어넣는 정원드림 프로젝트와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는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산림현안, AI로 도전...국립산림과학원 경진대회 개최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총 1200만 원 규모 시상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림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제1회 산림과학 AI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후변화, 산림재해, 지역생생, 바이오 신산업 등 산림분야의 현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딥러닝, 생성형 AI, AI 에이전트 등 최신 기술을 산림 빅데이터와 접목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산림정책과 대국민 서비스로 이어질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가 대상은 산림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공모는 ▲아이디어 기획 ▲현안 해결 및 서비스 창출 두 가지로 나뉜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AI 활용 연구계획서를, 현안해결 및 서비스 창출 부문은 AI 모델·데이터 분석 결과·프로토타입 등 구현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는 산림을 대상으로 한 전 분야에 지원할 수 있으며, 산림분야 공공·빅데이터를 비롯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경진대회 접수는 5월 6일(수)부터 6월 26일(금)까지 진행되며, 서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시상은 총 1,200만 원 규모로 7개 팀을 선정해 국립산림과학원장상을 수여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산불예방 위한 전직원 기동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민진)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산불 발생이 위험이 커지고 지난 26일 산불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전직원 기동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주중·주말 구분

없이 기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찾아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산림인접지역 화목 보일러 농가를 찾아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등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산불감시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산불드론감시단

을 집중 배치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드론 스피커를 활용한 산불 예방 음원 송출로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방지 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민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등 국민 모두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